

# 택배기사에 '엘베 사용금지' 진실공방

## 택배기사 "승강기 오래 잡아둔다며 이용 못하게해" 입주민 "금지 한적 없어...4개 택배사 물량 독점"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갑질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킨 이른바 '입주민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스 취재결과 승강기 사용금지 요구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택배기사 A씨 부부는 최근 입주민들의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1층 경비실로 배송하고 있다.

A씨는 기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남편)제가 보는 앞에서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내 배를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참았다"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A씨는 최근 입장문 게시를 통해 "아파트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승강기 이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제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 그래서 00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글을 맺었다.

택배기사 A씨는 먹고 사는 일에 쫓겨 추락사에 의한 '골반 골절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현재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택배일을 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부인이 함께 일을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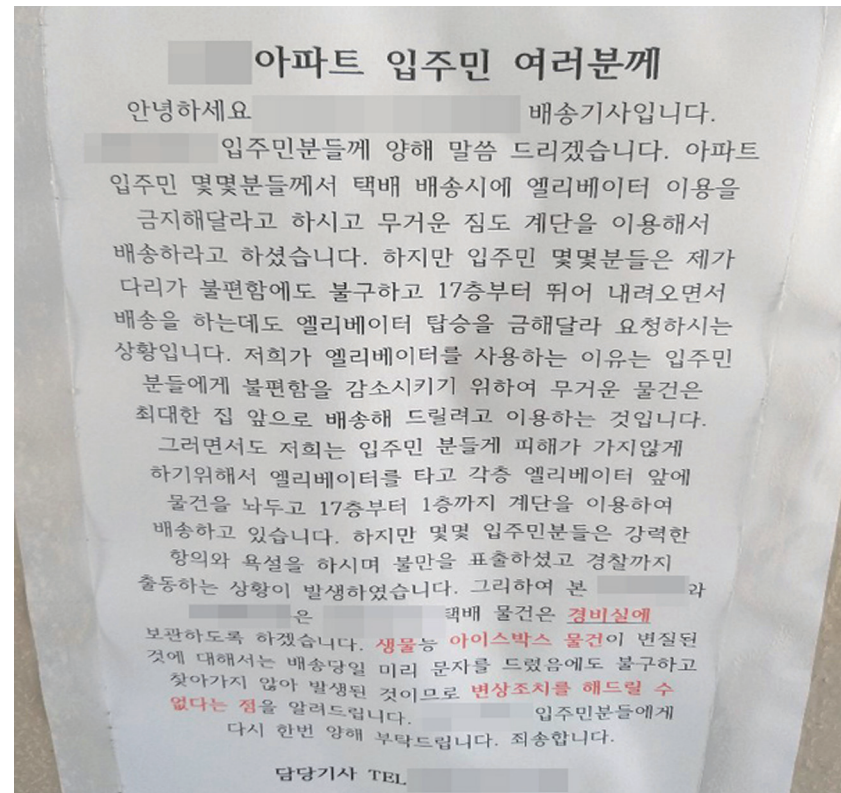
입주민 갑질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아파트는 최고층이 17층에 복도식이다. 20~30층을 넘는 대도시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교적 층수가 낮고 총 3대의 승강기가 운영되고 있다.

A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 도착하면 배송 물건을 각 층 호수별로 분류하고 승강기에 한꺼번에 싣고 올라가 17층에서 1층까지 물건을 승강기 앞 복도에 먼저 쌓는다.

이후 다시 승강기를 타고 17층까지 이동해 부인이 승강기를 잠시 잡고 있으면 A씨가 복도를 따라 각 호수별로 물건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승강기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불편하다는 일부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동대표를 비롯해 노인회장과 몇몇 입주민들이 승강기 이용을 자제 또는 이용하지 말라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본인들이 승강기



이용을 못하게 해 경비실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물건을 직접 집으로 배송해 달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14층까지 승강기 대신 계단만 이용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14층 입주민 B씨는 "택배기사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계단을 이용해 물건을 14층까지 배송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B씨는 이어 "A씨가 4개 택배사 물량을 독점하면서 평소에도 물건을 바쁘다는 이유로 확회 집어 던지듯이 거칠게 배송하는 등 입주민들이 오히려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회장이 A씨 부인에게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씨는 "노인회장 부부가 병원에 가 기 위해 승강기를 수차례 호출했지만 오지 않아 항의하자 택배기사 A씨가 먼저 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인회장이 승강기 사용 지연 문제로 항의하면서 '택배일을 관둬라', '승강기 사용료를 내지 않으니 계단을 이용하라'고 해서 순간 적으로 '아-씨'라고 먼저 욕을 했다"며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뉴스스

## 광주서 길 건너다 택시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이른 아침 광주의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께 광산구 신촌동 한 공원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길을 건너던 중 난 사고로 추정,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급책 검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수급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저금리 전화 대출 미끼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A(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PC방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건네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만~1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급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또다른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오도록 유도한 뒤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가로채려던 피해금 3430만 원은 현장에서 회수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밝히는 대로 신변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 기념품 판매금 횡령 전남 공무원 근로자, 항소심서 감형

전남 지역 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기념품의 기념품 판매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한 지자체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 기념관 기념품 판매금 269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념관 시설 관리와 기념품 판매·수급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기념품 판매금을 식료품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금 일부를 특정 용기에 장기간 보관, 면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반환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기념품 판매량·대금을 대장에 정상적으로 기재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횡령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매금에 대한 관리 체계 부실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고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장서 불...3억대 피해

전남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현장에서 불이 나 수억대 재산 피해가 났다. 18일 전남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37분께 고흥군 도화면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1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태양광 발전 패널·모듈 등 설비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억 974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설치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여권을 담보로' 보이스피싱 절도책 통솔 중국인 검거

### 방글라데시 국적 절도책 관리 맡아 여권 수거·보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훔치는 절도책을 통솔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절도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들로부터 여권을 회수·보관하며 범행을 통솔한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A(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29일 오후 8시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하기로 한 방글라데시인 2명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하며 절도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을 훔치는 외국인 절도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책을 자청한 외국인들로부터 여권을 거둬들였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훔치는 데 성공하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여권을 일종의 '담보'처럼 갖고 다니며 절도형 보이스피싱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에게 여권을 맡기고 범행에 가담한 절도책들은 광주·부산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49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절도책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절도 행각을 용이하게 도운 것으로 보고 절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